

아버지역할 지원 정책에 대한 기초 연구*

- 영유아기 아버지의 아버지역할 수행과 인식을 중심으로 -

김 유 경(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전통적으로 아버지에게는 직업역할을 중심으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는 도구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아버지의 가족 내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 따른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부부가 가족 내 역할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 나아가 남성 자신의 삶의 행복 차원에서 아버지 및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따른 즐거움과 행복의 의미를 인식하게 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들의 아버지역할에 대한 수행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의 아버지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2월-3월에 경기, 충청, 경북, 전남 등 전국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인 질문지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아버지역할 장애, 아버지역할 만족도 및 아버지역할 수행 증진을 위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은 첫 자녀가 영유아기인 남성으로, 최종 분석된 자료는 253부이며,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상관분석, ANOVA 및 사후검정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영유아기 첫째 자녀와 평일 하루 평균 2시간15분, 주말 하루 평균 8시간 13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평일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조사대상자의 학력, 직업, 직업의 근무 조정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고졸이하인 경우 대학중퇴 이상인 경우보다,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전문/경영직이나 관리/사무직인 경우보다, 근무시간이 조정가능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함께 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역할에 대한 자기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3.89점(5점 만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역할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5.88점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두 변수는 조사대상자의 학력, 직업, 가계소득 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영아기(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만족도가 유아기(만 2세 이상 취학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아버지교육 내용으로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을 볼 때 신체적 돌봄만이 필요한 영아에 비해 함께 놀아주어야 하는 유아 자녀들에 있어 방법적 측면에서의 부족이 역할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버지역할에 대한 장애는 평균 2.74점으로 보통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크게 장애를 느끼지 않는 편이며, 그 중 장시간 근로(3.4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3.2점), 경제적 형편(3.0점) 등의 가정외적/객관적 조건이 가정내적/주관적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장애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역할 장애는 아버지역할 만족도 및 ‘아버지역할이 즐거움’ 문항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아버지역할을 지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은 근무여건 개선,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대, 가족 단위 여가 및 문화시설 확대, 아버지의 육아휴직/부모휴가가 가능한 직장문화, 전문기관을 통한 아버지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의 순으로 나타나, 위에서 아버지의 직업이나 직업 특성, 학력에 따라 평일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차이를 보이며 아버지역할 장애요인으로 가정외적 조건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과 연관지어 볼 때 아버지들이 아버지역할을 충실히,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 사회 등 가정 외에서의 가족친화적 분위기의 조성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아버지역할을 위해 필요한 여가/문화시설과 아버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 본 연구는 201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한 ‘남성 대상 가족친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함.